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발행편집인 공영일
주간 이석우
편집장 김중석
인쇄인 김준배

제1049호 〈주간〉 1994년 7월 11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동독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강의평가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될 듯

평가기획단 교수업적평가제 1차시안 발표

평가기획단은 교수업적평가제도의 1차 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수업적평가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우리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재임용, 정규 및 조기승진, 연봉 재조정 등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크게 연구와 교육(강의평가), 사회봉사영역으로 나눈다. 이들의 구성비율은 연구 40~70%, 교육 20%~60%, 사회봉사 10%로 한다.

이 중 강의평가 부문은 1학기까지는 교수개인의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했지만 2학기부터 전체 교수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강의평가 목록을 보면 모두 6부문 6백 23문항으로 필수 4개 문항 외에 20문항을 교수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다. 화과 또는 단과대학별로 공통 필수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평가는 공통평가항목 4개 항목에 대한 5등급 평가에서 C급 이상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평점은 1년 단위로 평가결과의 총평균을 기준으로 A급을 1백%, B급을 50%로 하여 비례안분한다.

평가결과는 해당교수, 소속대학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연구부문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점수를 매긴다. 국내학술지 발표논문 1편을 1백%로 하고 국제학술지의 발표논문은 국내학술지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외부연구비 수혜의 실용적 연구로서 그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간행물은 학술연구 논문보다 낮게 차등 평가한다.

사회봉사 평가는 소속 대학장이 교수들의 학회활동, 전문지식을 이용한 자문 및 봉사활동, 주요일간지 기고문, 학교보직 등을 고려하여 평점을 주도록 한다. 교무위원급 이상의 보직자는 봉사영역의 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고 이는 총장이 평가한다.

버스운행시간조절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방학기간 중 스쿨버스 운행 시간을 발표했다.

스쿨버스는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 수원으로 하루 2차례만 운행하는데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여름특강이 열리는 날은 중편되어 있다.

〈방중운행 시간〉

기간		6월22일~8월31일
등교	강남	9:30 10:30
	수원	9:30 10:30
	신갈	매시정각(9:00 -17:00)
하교	강남	12:30 19:30
	수원	12:30 19:30
	신갈	매시30분(9:30 -16:30)

〈여름특강 중 운행시간〉

기간		7월12·13·19·20·26·27일 8월2·3일
등교	강남	9:30 10:00 11:00 12:00
	수원	9:30 10:30 11:30
	신갈	매시정각(9:00 -17:00)
하교	강남	12:30 13:30 17:00 19:00
	수원	12:30 14:00 17:00
	신갈	매시30분(9:30 -16:30)

서울 교내연구비 차등 지급

논문게재 학술지로 심사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논문질 향상을 위한 차등지급을 기준으로 총 131건의 신청과제에 94학년도 일반교내 연구비 지원금 3억7천여만원을 책정했다. 또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계약제를 실시하고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한편 본래 지원 예상금액인 4억2천만원 중 책정후 남은 5천여만원은 내년 3월까지 발행할 저서를 추가모집한 후 여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인문사회계의 경우 외국 학술지에, 이공계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대상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편당 1백만원의 연구비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교수연구질향상과 논문수준 국제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94학년도 교내연구비 지급과정에서는 특히 심사기준이 학술지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이는 논문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결과물 발표 예정지가 둘다 외국학술지 및 공인된 학술지일 경우 3백만원 또는 신청전액, 하나만 공인된 학술지일 경우 2백50만원, 교내학술지 및 공인되지 않은 학술지는 2백만원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자연·의학계열은 SCI 대상지인 경우 5백만원 또는 신청전액을 지급하며 공인된 국내학술지와 기타 학술지에 각각 4백만원, 3백50만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지금이나 역시는 인문·사회계열 3백만원 또는 신청전액, 자연·의학계열 5백만원, 예체능계 3백만원이며 편저·증보는 인문·사회·자연 계열 모두 2백만원이다.

이 심사기준을 통하여 학술연구비 83건, 저서지원 36건, 신임교원 12건이 확정됐다.

한편 신임교원은 의무적으로 연구과제를 제출하여 그 연구성과에 따라 3년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이 교수계약제는 2학기 신임교원에게도 적용되어 연구비가 지급된다.

학원장 남미 방문

총장 방일

세계대학총장회의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던 조영식 학원장은 지난 3일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에게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조박사는 현재 세계대학총장회의의 영구 명예회장, 일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메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이산가족재회 촉구 운동에 서명을 받기도 했다.

공영일 총장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일본의 자매교인 동경국제대학을 방문한다.

그리고 14일부터 교토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사립대학 총장단의 방일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동경국제대에는 조경원, 조장한 양캠퍼스총장과 김병묵 행정대학원장, 전여한 국제교류위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숙명·고려와 도서 전산망 잇는다

학교안에서 다른 학교 자료까지 검색 가능

코네트(CoNet)협의회 구성으로 도서관계 전산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학교와 숙명여대, 고려대 3개교 총장승인아래 지난 5월 28일 본격적 출범을 해 △도서관 업무표준화 △데이타베이스 공동구축 및 활용 △분담목록 시스템 운영 △분담수서시스템 지향 △상호대차 등의 목표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수원캠퍼스는 올해 2학기부터 운영될 중앙도서관의 단말기를 통해 위 학교의 도서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대와의 정보 및 자료환의 폭을 넓혀 올해안으로 승실대, 단국대, 청주대등 10여개 대학을 우선으로 계속 확장 할 계획이다.

한편, 소속 대학 도서관간의 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도모하여 도서관계 발전을 위해 결성된 이 협의회는 대표자회, 간사회, 분과위원회의 기구와 회장, 간사, 간사장을 두고 있다.

또한, 2월4일 에임즈(AIMS)라는 같은 시스템을 사용중인 우리학교와 숙대, 고대간에 협의회 구성을 결의하고 3월19일 숙대에서 구성을 위한 기초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에는 고대에서 2차 준비모임을 가진 후 4월12일 회칙및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대학도서관간의 네트워크의 등장은 국내외적 추세 및 상황을 고려해 볼때 늦은 편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데이타베이스구축에 드는 시간과 노력절감 △각 도서관 자료들을 통합함으로써 자원활용의 극대화 △도서관 자료검색의 용이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편이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격부 신기록 수립

수원캠퍼스 체육부는 사격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6월23일에서 28일까지 태능국제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2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사격부는 소구경 소총 3자세에서 단체우승을 했고 소구경 소총복사 개인전에서도 임윤교(체육2)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자 스키트부문에 참가한 이석태(체육3)선수는 결선에서 145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노조 임금인상 11~14%로 합의

94년도 노조 단체교섭이 지난달 28일 타결되었다.

임금인상 부문에서는 기본급이 사무·사무보조·기술직 11%, 기능직·관리직 12%, 환경직 14% 그리고 식대가 각각 만원씩 올랐다. 일용직에서는 남자가 일급 4천5백원, 여자가 4천원씩 올랐다.

올해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부문인 관리직 근무형태는 기존 주·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부터 오전 8시로 조가 나누어 진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기준으로 교대 근무한다.

수원도서관 이전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오는 8월 22일까지 중앙도서관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약 2천석규모의 좌석과 중앙난방시스템이 가동될 중앙도서관에는 입구를 중심으로 약 20여대의 도서검색용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생물, 화공과 평가실시

생물학과와 화학공학과의 평가가 지난달 29일에 있었다.

항목은 크게 교육목표·교육과정·학생, 교수, 시설·설비·행정·재정부문이며 결과는 내년 2월께에 나온다.

보직교수 5명 인사이동

고황재단은 지난 4일 서울캠퍼스 3명, 수원캠퍼스 2명에 대해 보직인사발령을 했다.

이 발령에 따르면 서울캠퍼스는 문리과 대학장에 남상열(문리대 생물학과)교수, 사범대학장에 이경희(사범대 교직과)교수, 교무처장에 유승희(체육대학 체육학과)교수가 발령받았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양중식(자연과학대 화학과)교수가 자연과학대학장에, 이숙자(외국어대 일어일문학과)교수가 외국어대학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①생년월일 ②학력 ③보직사항)

▲남상열 ①32년 8월1일 ②연세대 생물학과 학사, 동대학원 생화학 석사, 일본 류슈대학 생화학 박사 ③63년 신규임용, 생물학과 주임교수 역임 ▲이경희 ①41년 5월18일 ②우리학교 문리대 영문학 학사, 필리핀대학 도서관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학 교육행정 박사 ③70년 신규임용, 수원 외국어대학 교직과장 역임 ▲유승희 ①45년 12월6일 ②우리학교 체육대학 체육학 학사, 동대학원 체육학 석사, 박사 ③75년 신규임용, 체육과학대학원 체육학과 주임교수 역임 ▲양중식 ①37년 6월12일 ②한양대 공대 화학공학 학사, 건국대 대학원 화학 석사, 우리학교 대학원 무기화학 박사 ③79년 신규임용, 서울캠퍼스 대학원 화학과 주임교수 역임 ▲이숙자 ①45년 12월2일 ②일본 쇼와대학 가정학 학사, 아오야마대학 교육학 학사,석사,박사.

교시탑

시대착오적인 미덕

▼후덥지근하다. 불쾌지수가 80을 오르내리는 명일한 더위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 더위를 잘 참는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큰 '그러나'가 있다. 우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참는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요즘 여대생들은 그야말로 자유주의자라고 한다. 물론 우리학교 여대생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지적이다. 더위를 피하려는 노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타난다. 소매없는 티 혹은 배꼽이 드러나는 티, 짧은 반바지가 파감하다. 신발도 샌들이나 끈없는 슬리퍼가 유행이고 양말이나 스타킹은 이미 불필요하다. 따라서 비난의 화살 또한 정확하다. 대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한 주간지는 우리네 옛 여인들의 모습까지 들춰낸다. 폭폭찌는 삼복더위에도 몇겹의 속옷에 버선까지 신고 꼿꼿하게 여름을 났다고 말이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성이 갖추어야 할 청결하고 단아한 모습은 그대로라고 단정한다. 동감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청결과 단아함이 미적 가치를 가진다는 말은 그 현상마저도 그대로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 같다. 삼복더위에 몇겹의 속곳을 껴입는 것이 그 시대의 단아함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멋은 불필요한 겉치레에 신경쓰지 않는 간편함이 아니가.

▼물론 과대노출이 불쾌함과 민망함을 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미덕은 현명하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드러내기 시도가 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름옷의 근본기능이 더위를 피하는 것이지 드러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채연 記者〉

弱冠須讀五車書

약관수독오거서(弱冠須讀五車書)는
知的호기심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젊은 시절에는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포트 자료서적, 관심있는 사회과학 서적,
그리고, 교양 필독서 등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접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먼저 배운 선배님이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은
대학에서 우리는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책속에 길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을 그냥 썩여 두지 말고
잘 활용하여 모두 내것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학주보사